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황해남도의 태풍피해지역을 돌아보시며 피해상황을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황해
남도의 태풍피해지역을
돌아보시며 피해상황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황해남도당 위원회
위원장 리철만동지를
부르시여 도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태풍8호에 의한 피해
규모가 예상하였던것보다
적다고, 걱정이 태산같았
는데 이만한것도 천만다행
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올바른 위기대응의식을 가지고
태풍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을데 대한 당중앙의
지시를 접수한 즉시 예견성
있는 안전대책들을 취함으로
써 인명피해를 줄이고 각
부문별 피해규모를 최소화
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 체계가
바로서가고 위기대처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어가고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 말씀하시였다.



수확고감소를 최소화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인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고 성심성의로
도와주는것이 우리 당이
응당 해야 할 최우선
과업중의 하나이라고,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있는 당중앙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각 부서
들이 황해남도의 농경지와
농작물피해복구사업에
모두 동원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모두가 승리의 신심
드높이 피해복구사업을
하루빨리 결속하기 위한
전격적인 투쟁을 벌여 당창건
75돐을 자랑찬 로력적성
과를 안고 가장
의의깊고 성대히 맞이하자
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정무국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정무국회의가
8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들에
참가하시였다.

회의들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성원들을 비롯한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방청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서 책임일군들과 기타 해당 부문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운영집행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비한 국가비상방역태세를 점검하고
방역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한
해당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악성전염병의 류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인 비상방역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일련의 결함들을
엄중히 평가하고 시급히 극복하여야
할 대책문제들을 연구하였다.

회의에서는 강도높은 방역조치실시에
관한 당중앙의 사상을 각급 당, 사회
안전, 보위기관 일군들에게 다시한번
깊이 체득시키고 완벽한 방역형세를
비상대책들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들을 집중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국가비상방역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일부 허점들에
대하여 자료적으로 통보하시면서 방역
태세를 계속 보완유지하고 일련의 결함
들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전담적, 전사회적으로
강력히 강구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제기된 안전들에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8월 26일부터 27일사이에
황해남도와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전반적지역이 강한 태풍의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는것과 관련
하여 태풍피해방지와 관련한 국가적인
비상대책들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이르시면서 특히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농업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련계밑에
농작물피해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생육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최소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가장
의의깊고 성대히 맞이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지시문을 작성하여 하달
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 이어 정무국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의 결정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을 연구협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조직
하고 사업체계와 분과, 소조들의 사업
분담을 확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은
해당 결정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본사기자

9월 2일!
이날은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의 품에 안긴지 스무해가 되는 날이다.

나는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나의 손을 잡고 진정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 이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애오라지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뿐입니다.》

비전향장기수들의 나이는 대개 80순준이고 90이상에 사는 사람만도 10여명이나 된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조선혁명과 인류사에 비범한 흔적을 남긴 그들의 한생애에 관동되어 흐르는 뜨거운 소원의 세계에 가슴을 적신다.

1

소원, 누구나 소원을 안고 산다.

인간의 삶의 목적과 지향이 뚜렷이 그려지는 소원에는 그것을 자라누는 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다면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있어 그것이 무엇인가.

비전향장기수들은 조국의 품에 안겨 맞이한 첫날밤을 특별히 잊지 못한다.

인간은 열혈만 충창길에 있어도 집이 꿈에 어린다고 했다. 하지만 한두해도 아닌 반세기 가까운 세월 사지판을 돌다가 조국의 품에 안겼으니 그들이 어찌 이날을 잊을 수 있었는가.

우리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환영의 꽃바다에 실려 평양에 도착해 집을 흔 평양고려호텔에서의 첫날밤으로 옮겨졌다.

만시름을 잊고 사랑의 집에서 두발을 쭉 펴고 밀린 잠과 쌓인 피로를 다 풀라고, 이제 더는 머릿말에서 살점을 뜯어내는 체척 소리가 울리지 않고 가슴을 짓는 비명소리로 울리지 않겠으니 악몽에 시달리다가 소스라쳐 깨어나는 그런 밤은 영원히 사라졌다 고 정성껏 퍼놓은 정갈한 이부자리조차 속삭이는듯 하였다.

하지만 새벽별이 뜰 때에도 그들은 잠들지 못하였다. 걸어서 못 오면 기어사라도 오고 기어서 못 오면 엎이라도 오겠다면 그리운 집, 그리고 소원하고 또 소원했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드디어 안긴 이들이 아니었던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믿고 30~40년동안 모진 시련속에서도 자기의 사상과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지켜낸것은 력사에 없는 일이라고, 우리 당의 자랑이며 조선혁명가들의 본보기인 비전향장기수들을 남조선에서 우리 당의 품으로 데려오는것을 령도자가 전사들에게 베풀수 있는 가장 숭고한 동지적사랑으로, 혁명적의리로 간주한다고 하시며 그들을 데려오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러 감사의 큰 절을 드리며 그들은 설레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였다.

소 원

커다란 흥분과 감격속에 잠갈한 이부자리를 꿈인듯 쓸어보고 또 쓸어보며 그날 눈을 뜨고 밀린 잠, 쌓인 피로를 다 가셨다고 동일애국투사들은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조국에서의 첫날밤을 이렇게 보낼 때 그밤조차 자기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잠 못드는 은혜로운 손길이 있는줄은 미처 다 몰랐다.

긴긴 세월동안 감옥에서 찢기고 더지고 꺾이워 폐인이 되고 불구자가 되어 사문자에 앉아 조국의 품에 안긴 그들에게 뛰니뛰니 해도 제일먼저 안겨주어야 할것은 건강한 삶이었고 누구보다 당당히 이 땅을 밟을 권리를 지닌 이들의 여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밝아온 새날에 시작된 최상급 병원에서의 건강검진은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나라의 정세가 엄혹하다 할지라도 이들을 위하여 마련된 건강관리시간표는 한치의 어긋도 없이 시행되고있다. 담당의사들과 간호원들이 그들의 결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어린아이들 돌보듯 살뜰히 보살펴주고있으며 귀한 보약재들은 처방에 따라 끊임없이 안겨지고 있다. 해마다 좋은 계절을 맞춰 나라의 경치좋은 명산과 명수에 가족들과 함께 불러주고있으며 몇몇이봉사시설이 일떠설 때면 첫 손님으로 그들을 레외없이 초청하고 한다.

《조국의 품에 안겨산 7300여 일, 이 나날은 우리의 가슴속에 서린 하얀 서리가 말끔히 녹아내리고 인생략업이 청영으로 환생한 꿈같은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말을 보중이나 하듯 나에게 펼쳐보이는 사진첩의 사진들은 한장한장이 하나같이 이 세상 행복을 독차지한듯 밝게 웃는 모습들이었다.

명산으로 오르며 푸른 숲에 마음을 한껏 물들이고 명소마다에 출렁이는 맑은 물에 가슴을 흠뻑 적시며 백발에 곱잡은 정춘이 된 험색이 좋은 그들의 건강한 모습은 그자체가 벌써 감동이었다. 물여보이는 두툼하게 쌓인 선명색표며 펼쳐보이는 조선작가동맹과 음악가동맹, 미술가동맹의 맹원증이며 박사메달과 중서의 인간으로서, 공민으로서 자기의 소원을 백배 더해 성취한 행복의 증표였고 그것을 안겨준 어머니당의 품에 대한 송가였다.

나는 꽃같이 피어난 한 처녀의 모습에서 눈길을 빼지 못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이름을 부여하신 축복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인 축복이 비전향장기수들모두의 자식이다. 오랜 세월 감옥에서 폐인이 되었던 늙은 이가 로후에 후대를 보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솔직히 없었다. 그

런데 비전향장기수들은 바다속공중에서 불사약을 먹고 인생말단에 금옥같은 자식을 보았다는 전설적이야기의 실재한 주인공들이 된것이다.

백발청춘이란 말은 그저 쉽게 외울 말이 아니었다. 손자나 증손자를 두어야 할 나이에 꽃같은 딸을 가진 꿈같은 이 현실을 두고 과연 무슨 말을 더 고를수 있었는가.

여기에 어느 한 비전향장기수가 자주 들려주곤 하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감옥생활을 할 때 남쪽에 계시는 늙은 어머니가 면회를 오곤 했는데 울 때마다 《아들아, 살아야 나는 벌써 이 세상사람이 아니었다. 가슴이 무너져내리고 앓이 캄캄하였다.

하지만 아니할 걱정이었다. 조국의 품에 안기니 어머니가 한생, 아니 천생을 산대도 다 출수 없는 크나큰 사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기 한명뿐이 아닌 조국의 품에 안긴 63명의 비전향장기수모두를 신명과 의지의 강자들로 불려주고 금별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었으며 이 세상 가장 행복한 행운아로 되게 해준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의 품이 있는것이였다.

그는 《나에게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곤 하였다. 이것이 어찌 한사람만의 이야기이고 격정이겠는가. 그것은 눈에 흙이 들어가지도 잊을수 없는 고투인 우리 당에 대한 비전향장기수들의 참으로 뜨거운 감사의 노래였고 이들이 온몸으로 부르는 백발청춘송가였다. 이들이 실장으로 부르는 어머니당에 대한 노래는 과연 몇걸까지만 다 부를수 있을것인가.

세상에 나라와 민족도 많고 당도 많다. 그들이 낳은 투사도 영웅들도 많다. 하지만 긴긴 인류사의 폐지우에 이처럼 오랜 세월 감옥살이를 한 비전향장기수들을 당의 자랑으로, 혁명가들의 본보기로 내세워주며 곱잡은 기적적인 현실을 펼쳐 사랑과 믿음의 절정에 내세워준 그런 품에 대한 이야기 기록된적이 있었는가.

지속에서 락원행을 한 그들을 금방석에 앉혀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준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끝맺을길 없는 고투의 노래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씩씩한 생명의 은인이시며 영원한 삶의 보호자이신 자기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주체의 사회주의의 운명이고 찬란한 미래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길이 바라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소원이

로 강렬하게 불타오른다. 내리는 사랑에 오르는 충성으로 이어지고 다져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숭엄한 이 사상감정은 그들이 한생 간직하고 살아온 백옥처럼 깨끗하고 굳센 마음속에 혁명가의 고결한 양심으로 아름답디 거목처럼 생의 지심깊이 뿌리내린것이었다.

2

통일에국투사들이 부르는 불타는 소원의 노래에는 가슴치는 사연이 있다.

통일에국투사들은 력사적인 6.15공동성명이 발표되던 날 새벽 1시 15분, 남조선에서 맞이한 력사의 그 순간을 금방인듯 꿈인듯 말한다.

무쇠도 녹이 쓸어 붉은 쇠가루로 변해버렸을 그 모진 악행이 자행된 수십년의 감옥살이속에서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지던 가장 처절했던 정면적시련에서도 한결 동요나 후회의 눈물도 없이 희망의 등대로 빛나는 공화국만을 우러러 부끄럼없이 살아온 신념의 강자들이 그때 자기들을 소리쳐부르는 어머니당의 목소리에 서로 부둥켜안고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불려주고 금별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었으며 이 세상 가장 행복한 행운아로 되게 해준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의 품이 있는것이였다.

《우리 장군님 같이신분은 이 세상에 한분밖에 없습니디!》

그들은 신념과 의지로 다져진 가슴속에, 살아온 한생우에 그이를 더 잘 받들어갈 맹세를 지워지지 않는 비분처럼 깊이 쪼아 새기였다.

하지만 그날의 맹세를 충정을 다해 받들지 못한 안타까움에 가슴을 두드린다.

당도 조국도 인민을 위해 있고 정치의 목적도 인민을 위한것이라는 한평생의 좌우명을 붙은 기록에 새겨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저없이 선택하신 선군혁명의 길, 그 길은 이 세상 가장 정의롭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길, 가장 성스러운 인민결사후의 길이었으나 겹쳐드는 만단식으로 이루어 헤아릴수 없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대동강댐지공장에 참관을 갔을 때 그곳 지배인은 자기 공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돌아오시기가 실현된 살림집을 돌아보시면서 나도 이런 살림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이런 집을 쓰고살 사람들이 부럽다고 교시하시였다고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으신 피로가 얼마나 컸는지요, 아늑하고 단란한 가정적분위기가 얼마나 그리우시였으면 이런 교시를 다 하시였겠는가.

그날 비전향장기수들은 일기장에 눈물로 이런 글을 남기였다

고 한다.

《한나라 령도자라고 하여 어찌 개인적인 소원이 없겠는가. 그런데 공장종업원들의 살림집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집을 쓰고살 사람들이 부럽다고 교시하시였으니 그 교시를 새기는 우리 가슴이 어찌 지러나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을 위한 그 어떤 작은 소원마저도 깊이 물어두시고 오직 문명강국에 살고싶어하는 온 나라 인민의 소원을 풀어주시려 한몸에 실린 것이 자행된 수십년의 감옥살이를 이겨내시며 선군혁명 천만리길을 이어가신다. 우리 장군님은 고금의 력사에 다시 없을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다.》

청년 만사람을 울리는 절세위인의 위대한 소원의 세계는 인류사에 소원이라는 말이 생겨 인간이 처음으로 목격하는 비상한 현실과 사랑의 세계이고 우리 인민들이 받아안는 특전특혜였다.

그때부터 그들은 그이의 인민이 된 도리를 다하고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앞장서 걸으신 전선길과 대진설전투장들, 공장, 기업부끄럼없이 살아온 신념의 강자들이 그때 자기들을 소리쳐부르는 어머니당의 목소리에 서로 부둥켜안고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불려주고 금별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었으며 이 세상 가장 행복한 행운아로 되게 해준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의 품이 있는것이였다.

《우리 장군님 같이신분은 이 세상에 한분밖에 없습니디!》 그들은 신념과 의지로 다져진 가슴속에, 살아온 한생우에 그이를 더 잘 받들어갈 맹세를 지워지지 않는 비분처럼 깊이 쪼아 새기였다.

하지만 그날의 맹세를 충정을 다해 받들지 못한 안타까움에 가슴을 두드린다. 당도 조국도 인민을 위해 있고 정치의 목적도 인민을 위한것이라는 한평생의 좌우명을 붙은 기록에 새겨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저없이 선택하신 선군혁명의 길, 그 길은 이 세상 가장 정의롭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길, 가장 성스러운 인민결사후의 길이었으나 겹쳐드는 만단식으로 이루어 헤아릴수 없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대동강댐지공장에 참관을 갔을 때 그곳 지배인은 자기 공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돌아오시기가 실현된 살림집을 돌아보시면서 나도 이런 살림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이런 집을 쓰고살 사람들이 부럽다고 교시하시였다고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으신 피로가 얼마나 컸는지요, 아늑하고 단란한 가정적분위기가 얼마나 그리우시였으면 이런 교시를 다 하시였겠는가.

그날 비전향장기수들은 일기장에 눈물로 이런 글을 남기였다

고 한다.

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생 어머니장군님의 혁명방식, 생활방식을 따를것이라시며 비전향장기수들이 모두 건강하고 보람찬 삶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바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그대로 가슴가득 안겨주실수 있게신다.

수십년간 철창속에 살면서도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단 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에도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 높여 웨친 통일에국투사들을 세상 앞에 더 높이 내세우시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행사 대표로 제일선참 불려주시고 제5차 전국로병대회에서 이어 제6차 전국로병대회의 주석단에도 몸소 비전향장기수들의 대표를 앉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후속한 년대와 모진 세월도 다 이겨내시던 것처럼 강인한 로병동지들이나도 세월의 흐름은 어쩔수 없는지 머리에 흰머리가 내려앉는것을 피하지 못하시는것을 보니 세월이 야속하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나는 전국의 로병동지들이 오메오메 건강장수하여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고 조선인민군대에 임대하는 초모생들앞에서 열면 연설도 많이 했다는 연설과 상봉모임을 가지려는 예설 노력하였지만 늘 부족함에 안타까와한 그들이였다.

그 나날 비전향장기수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탄생일 하루만이라도 눈비에 색바랜 야전복을 벗으시고 계간우에 베킨이를 매시도 따뜻한 집에서 천만아들말들이 울리는 축배잔도 받으시며 즐거움속에 계시었으면 하고 길이 소원하였다.

《우리가 누려온 잊지 못할 수많은 날중에 가장 뜻깊은 날은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당대회의 대표로 불러준 날입니다. 나라의 중요직무에서 일해본 일도 없고 당의 위업을 받들어 빛나는 위훈을 세운 일도 없는 우리들을 그 때 우리모두는 꿈을 꾸는것만 같았습니다. 지금도 소중히 간수하고있는 이 대표들은 우리들의 한생애에 대한 최고의 표창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더해갈수록 인생의 가을에 사는 비전향장기수들의 가슴은 혁명의 계주봉을 새 세대들에게 독특히 넘겨주어야 하겠다는 방방곡곡으로 불란다.

그들은 자손들에게 어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당과 조국을 먼저 알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열렬한 애국충신으로, 억센 기동감들로 자라나라고 간곡히 당부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잘 모셔 야 조국이 번영하고 인민이 행복하다. 당을 따라 애국충신의 한 걸음을 가거라.》

엄혹한 동토에서 햇빛을 그리며 살던 사람들과 꽃피는 동산에서 봄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의 웨침이 서로 갈을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령도자들을 모시지 못하였다면 믿어 간직할 신념도 없었고 병마에 시들며 길가의 막돌처럼 버림받았을 비전향장기수들이 한생의 뼈저린 체험을 통해 새긴 진리는 수십수백의 보물보다 값지다.

그래서 통일에국투사들의 당부의 한마디한마디를 우리는 더욱 심장깊이 새기는것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의 자랑이고 행복의 꽃인 축복이도 오늘 그 당부를 안고 온 나라 인민들과 청년학생들과 함께 당중앙결사보위주시키고 제5차 전국로병대회에서 이어 제6차 전국로병대회의 주석단에도 몸소 비전향장기수들의 대표를 앉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후속한 년대와 모진 세월도 다 이겨내시던 것처럼 강인한 로병동지들이나도 세월의 흐름은 어쩔수 없는지 머리에 흰머리가 내려앉는것을 피하지 못하시는것을 보니 세월이 야속하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나는 전국의 로병동지들이 오메오메 건강장수하여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고 조선인민군대에 임대하는 초모생들앞에서 열면 연설도 많이 했다는 연설과 상봉모임을 가지려는 예설 노력하였지만 늘 부족함에 안타까와한 그들이였다.

회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만을 하늘땅 끝까지 따르고 받들 때 인간의 참된 삶도 있고 인민이 그처럼 녀된하는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소리 더 높이 울릴 사회주의강국의 그날도 밝아오며 8천만계세가 터치는 조국통일만세소리가 삼천리에 진동할 력사적인 그날도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단풍은 락업이 아니다. 단풍은 불타서 아름답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오늘도 온 나라 인민을 애국의 한길, 신념의 한길로 부르는 글들을 써내며 손에서 펜을 놓지 않고있다. 인민을 위한 건설의 대가님비가 일떠서는 들쭉한 건실장들에 지원됨도 안고 가며 가슴속에 안고사는 자기들의 대표로 불러준 날입니다. 나라의 중요직무에서 일해본 일도 없고 당의 위업을 받들어 빛나는 위훈을 세운 일도 없는 우리들을 그 때 우리모두는 꿈을 꾸는것만 같았습니다. 지금도 소중히 간수하고있는 이 대표들은 우리들의 한생애에 대한 최고의 표창으로 됩니다.》

... 친근하신 그이 모셔 강산은 따뜻하고
영명하신 그이 계서 미래는 창창합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하늘땅도 소원하는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 진정 온 나라 인민들이 심장으로 합창하는 시대의 송가는 통일애국투사들의 불타는 소원의 세계와 열화같은 충정, 새대를 이어 간직하고 사는 이 나라 인민의 일련단심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겨주며 위대한 당을 따라 신심높이 나가는 일심단결의 대오에 높이 울리고있다.

신 흥 국

오늘 공화국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나라의 영예를 떨치고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청년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7월에 진행된 국제인터네트프로그래밍경연인 《코드쉐드》도전경연에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전 금성은 경연의 최고점수인 1 000점만점을 받고 우승하였다.

지난 해에도 공화국의 청년학생들은 3차례에 걸쳐 이 경연에서 1등을 쟁취하였으며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는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제1위를 하고 6명의 국제기억대가상수상자를 배출함으로써 조선의 교육수준을 잘 보여 주었다.

각 대학에서 학생과학연구구조화동들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대학생들은 수백개의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나가 해당 단위의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나라의 명예를 떨치는 과학인재들과 체육명수들,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있는 공로자들중에도 청년들이 많다. 부모 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고 투류영예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주는 미풍을 비롯하여 사회에 넘쳐흐르는 무수한 미덕과 미담의 대하

▶▶▶ 밝은 미래를 가진 나라 ▶▶▶

에서 주류를 이루는것도 다름아닌 청년들이 발휘한 소행들이다.

오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청년들이 력사의 변두리로 밀려나가거나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고있을 때 공화국에서는 청년들이 국가와 사회발전에서 믿음직한 역군으로서 나라의 자랑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전세의 위인들께서 한평생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청년증시사상과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일찌기 청년문제를 민족자주위업의 성과와 관련된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적청년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으로 조선청년운동의 시련을 열어놓으시고 청년들을 자주위업실현의 전위대로 만드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청년절

운 높은 단계에서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제101(2012)년 8월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청년절을 맞으며 경축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하시고 경축행사대표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어린 축하문을 보내주시였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때일이 앞당겨진다고

하며 시대의 멘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령도자의 크나큰 믿음속에 공화국의 청년들은 조국을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 청춘의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은 청년들이 강해나라도 더욱 강하다. 령도자를 멘 앞장에서 옹위하고 령도자의 구상을 한몸 다 바쳐 결사관철하는 청년대군이 있어 공화국은 끄떡없고 언제나 승리의 밝은 길만이 열려져 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평양의 청춘거리에 있는 야산에 수많은 백로가 날아들어 마치 흰구름을 퍼놓는것 같은 아름다운 광경을 펼쳐놓았다.

이곳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지난 봄철부터 백로들이 날아들기 시작하였는 전문가들은 수많은 백로가 청춘거리의 야산에서 여러달 동안 서식하면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고있는것은 이곳에 갖가지 나무들이 우거진 수림지대가 펼쳐져 새들의 서식에 유리한 생태환경이 조성되어있기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 수림지대에 날아든 백로들은 대백로, 중백

▶▶▶ 청춘거리의 나라산 백로떼 ▶▶▶

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많은 백로가 평양의 산기슭에 무리지어 날아든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백로가 청춘거리의 야산에서 여러달 동안 서식하면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고있는것은 이곳에 갖가지 나무들이 우거진 수림지대가 펼쳐져 새들의 서식에 유리한 생태환경이 조성되어있기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 수림지대에 날아든 백로들은 대백로, 중백

로, 쇠백로 등 3가지 종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곳에 매 우 드물게 나타나는 밤밭목마귀와 누른물까마귀들도 서식하고있는데 이것은 공화국의 자연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는 증례라고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부능정당의 들끓는 여론전

남조선의 《미래통합당》이 음흉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당계리들은 지금 도처에서 탈당한 경제정책을 내놓고 집권세력의 부정부패의혹을 파헤치는 여론전을 펴는 것과 함께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저들에게 있는 듯이 놀아대며 민심의 기대감을 다 꺾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저들의 부패무능을 가리우고 민심을 기만하여 또다시 재집권야망을 실현하려는 보수세력의 알뜰한 술책이다.

보수적역당의 무능과 부패는 이미 박근혜 《정권》의 파멸과 함께 여지없이 립증되었다.

박근혜와 같이 《대통령》으로서의 초보적인 품격과 자질도 없는 무지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간추물을 권력의 자리에 올려앉히고 반역정책과 부정부패, 《국정》 혼란행위를 적극 뒷받침한 장본인, 남조선사회를 온갖 불의가 판을 치는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미래통합당》이다.

보잘것없는 무당의 지휘봉에 따라 놀아나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인 보수계리들의 약정하에 남조선에서는 《유신》파쑈독재가 부활되어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장그러 말살되는 속에 인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당하였다.

남조선에서 극심한 생활난

으로 하여 사랑, 결혼, 해산, 집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버리는 《7포세대》를 넘어 자기의 모든것을 포기하는 《N포세대》가 생겨나기도 부패무능한 박근혜보수세력에 의해 빚어진 현실이다.

온갖 범죄와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세월》호참사와 같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속에 남조선에서는 더는 살래야 살수 없어 스스로 목을 매거나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으며 무능하기 짝이 없는 보수세력 때문에 남조선정치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경제와 민생은 거덜이 났다.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 초불민심에 의해 권력의 자리에 쫓겨나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히게 된것은 바로 그들의 부패와 무능, 무지가 빚어낸 필연적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부패무능한 보수적역당이 그 주제에 《능력있는 대안정당》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민심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망동이다.

남조선의 각계가 《김종인》에게서 경제위기수습책을 기대하는것은 썩은 나무뿌리에서 새순이 돋기까지 기다리는것만큼 어리석은것이라고 야유하며 《미래통합당》의 감언리설에 침을 뱉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대어투쟁방식의 《변화》를 떠들며 민심의 리해와 동정을 불러일으키려고 무전 애를 쓰고있다고 한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시기 《미래통합당》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여론의 눈길을 끌려고 《국회》보이코트나 집회, 삭발, 단식 등의 장외투쟁을 벌려왔다. 하지만 그것들은 민심의 공감과 호응은커녕 오히려 반감만 불러일으켰다.

이런데로부터 《미래통합당》은 이전의 《국회》밖에서의 강경투쟁방식으로부터 이제는 《한내투쟁》으로 전환하고 대 《정부》, 《국정감사》와 같은것을 통해 현 당국과 여당을 몰아대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체모를 살려보려 하고있다고 한다.

한편 박근혜탄핵을 계기로

국우보수계리들이 반 《정부》 집회들에서 부러낸 광기와 망동이 남조선 각계층의 골수에 사무쳐있고 지난 시기 저들이 여기에 동참한것으로 하여 지지들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당내 인물들이

《변화》의 허울속에 감추어진 송곳이

보수단체들의 집회에 참가하는것을 극력 피하고있다고 한다. 여기에 한수 더 떠서 보수단체들에 집회는 하더라도 《정부》의 방역요구에는 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할 말은 안한다는 냉소를 퍼우며 돌아가고있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남조선 각계에서는 《골목장패가 중절모를

쓴 신사용내를 내고있다.》는 야유와 조소가 울려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변화》를 운운하며 껌잡은 흉내를 내고있지만 그것은 민심의 분노와 혐오감을 누락해보려

지 바꾸어지는것은 아니다. 지난 시기 《미래통합당》의 력대 전진들이 권력준거처럼 보수세력들은 권력을 잡기 전에는 하나와 같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듯이 요란히 광고하였다. 그러나 민심기만으로 권력을 쥔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실개파쑈독재와 저들의 부귀만을 위한 부정부패행위에 매달렸다.

송냥이는 송냥이새끼를 낳지 양새끼를 낳는것은 아니다.

《미래통합당》이 《변화》의 허울속에 민심의 동정을 구걸하는 구슬픈 양을음소리를 내고있지만 남조선인민들은 거기에서 권력이라는 먹이를 노리며 발톱을 감주고 송곳이를 갈고있는 정치야심가들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남조선 언론 《미래통합당》을 신랄히 조소하는 만화 게재



《절한다고 본질이 달라지나》

지난 21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가 《미래통합당》패들이 광주에 찾아와 질을 하며 《사죄》놀음을 벌려도 보수적세력들의 본질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것을 풍자 조소한 만화를 실었다.

신문은 8.15절에 참가하였던 《미래통합당》의 전, 현직의원들 모두가 자백격리대상이지만 방역당국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궤변만 늘어놓고있으며 김종인이 광주에 찾아와 무릎꿇고 《사죄》를 하였지만 남조선인민들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만화화설문도 같이 소개하였다.

본사기자

사회는 지은 죄에 대해 상대편에게 용서를 비는것입니다.

그것도 진실이 담겨야 사회가 되는것이지 조금이라도 후심이 비겼다면 사회가 아니라 사기로 될것입니다.

얼마전 남조선의 《미래통합당》이 광주의 5.18민주묘지를 찾아 고양이 죽은데 취눈물 같은것을 흘리며 《사죄》놀음을 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반응은 복철에 싹떡 보듯 하는구만요.

하기야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읽었다는 사람만 보아도 좌우를 오가며 아무 집권세력에게나 불어살던 박쥐, 정치간상배로 알려진 인물이고 과거 《유신》독재자에게도 복부했으며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이후는 군부독재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도 가담했던 늙은이니 무슨 《진심》이라는게

있겠습니까.

그때 남조선인심, 특히 광주인민들의 눈으로 그 《사죄》의 일부를 의역해보았습니다.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된 1980년 5월 17일 저는 대학연구실에 있었다.

권력에 적극 항변한다는것

은 역시 약자의 현명치 못한 행동이다. 독재의 법정에선 이것 또한 유죄이다. 그래서 나는 신문부를 지지하여 그들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제무반과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나보고 그 과정, 배경을 말하며 용서를 구하라는 소리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명백한 결심을 피력한바 있다. 다시한번 이에 대해 강조 말씀드

려다. ...

광주에서 그런 비극적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걸 《민주화운동》이라 하고 《5월정신》을 쫓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행동에 저희당이 보다 더 엄중한 죄초리를 못 들었다. 일부 좌익정칙인들까지 그에 편승하는 태도를 보였다. 표현의 자

도 자기를 반성할줄 알아야 한다. ...

보수 《정권》이 독재를 생리로 하는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다.

제 미약한 발걸음이 광주의 잘못을 깨우치고 보수가 장기집권의 미래로 나가는 작은 계기로 됐으면 한다.

이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의 본심이고 목적일것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사죄하겠다고 생각했다면 《5.18은 폭도들의 란동》, 《5.18사태》, 《5.18공공자라는 피물집단》, 《전두환은 영웅》, 《광주,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라고 뇌까린자들을 명백히 처벌하고 그자들을 모두 끌고와 함께 죄를 빌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정혁

아직도 《미래통합당》은 전라도지역 주민들과 남조선인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5.18역사외국처벌법》, 《5.18유공자배우법》, 《5.18공법단체설립법》 등의 《국회》통과를 한사코 반대하고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에 《민주화운동》, 《민주화정신》을 박아넣고 《사죄》한다고 머리를 조아리지만 그것은 《보수의 불모지》인 전라도지역의 민심을 끌어당기고 지지표를 끌어모아보려는 눈거리정치적세력, 대사기극이라는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또 한번의 대사기극으로 광주의 영령들을 모독하고 두벌죽음을 강요했으며 자기들의 재집권야망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사기와 협잡도 《미래통합당》의 불치의 고질병일것입니다.

본사기자

《참배가 아닌 사죄부터 해야 한다》 광주 시민들이 비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지난 19일 광주 시민들이 광주에 온 《미래통합당》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방,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들과 광주시민들은 《(미래통합당)은 참배가 아닌 사죄부터 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망언의원 3명부터 제명하고 참배하라》 등의 글이 씌어진 선전물을 들고 김종인을 비롯한 《미래통합당》패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규탄하는 《그림자시위》를 단행하였다.

신문은 광주 시민들이 《5.18을 정치적으로 리용하는 《미래통합당》을 규탄한다!》, 《역사외국, 민주정신 궤멸 일삼는 《미래통합당》 해체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단죄하였으나 《미래통합당》패들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제 불장만 보고 광주를 떠났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비굴한 친일사대매국행위를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한다. 그런가 하면 보수세력들은 친일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민심에 대해 《편향된 력사이야기》, 《국민을 편가르기하는것》 등으로 맞서고있다.

이것은 일본의 과거죄악을 끝까지 결산하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에 대한 로골적 인 배신행위이며 군사대국화야망에 환장한 내심 나르오랑개들에게 재침의 길을 터주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역적사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과거죄악을 천백배로 받아내려는것은 우리 겨레모두의 불변의 의지이다.

이미 오래전에 청산되었어야 할 친일적역부리들이 오히려 머리를 쳐들고 반일에국세력에 반기를 들고있는것이 오늘 남조선의 개관스러운 현실이다.

일본의 과거청산과 함께 친일적폐청산은 더는 미룰수 없는 남조선민심의 요구이고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이며 이에 역행하는 역적무리들이 갈 곳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장뿐이다.

문광월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역적당을 강력히 규탄

지난 20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가 친일청산을 가로막으며 기승을 부리고있는 《미래통합당》을 단죄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일제에게 잘 길들여진 친일민족반역자들의 유전자 리승단의 《자유당》으로부터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에 이어

《한나라당》, 《미래통합당》까지 이어지고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친일행적을 일일이 폭로하였다. 이어 남조선인민들이 지지하는 친일청산을 반대하면서 김원웅의 《기념사》를 힐짚고있는 《미래통합당》은 토착왜구세력이며 친일민족반역자의 후예, 《국정》 통단적폐세력에 부역한 전

파자라는 2중오명을 쓰고있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끝으로 지난 수십년간 일제의 잔재가 머리끝까지 풀수에 박힌 군사쿠데타세력, 친일적폐세력의 후예들이 민족의 불행과 비극을 끝장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며 각계층은 토착왜구청산을 펼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8월 22일에는 일제가 강도적인 《한일합병조약》을 조작한 때로부터 110년이 되는 날이다.

알려진것처럼 1905년 불법무법의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1910년 8월 22일에는 군사적위협과 풍갈필에 조선을 일본에 병합한다는 《한일합병조약》이란것을 날조하였다. 일제는 이 《조약》을 조작함으로써 형식상으로 존재하던 조선봉건국가를 완전히 없애 버렸다.

당시 일제는 우리 민족의 거세찬 반일투쟁기세에 겁을 먹고 《조약》을 공포하지 못하였다가 8월 29일에 가서야 왜왕의 《칙령》으로 공포하였다. 일제는 불법무법의 《한일합병조약》 날조 이후 장장 수십년간에 걸쳐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강요하였다.

조약 아닌 거짓문서로 우리 나라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야만적인 식민지파쇼통치를 실시하여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일본의 과거죄악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결코 지워질수도 가리울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당국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침략과 략탈의 력사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력사의 과실등을 광분하고 재침의 칼날을 버리며 갈수록 죄악을 덧쌓고있다.

이것은 천년속적 섬나라족속들에게 대한 우리 민족의 분노와 중의의 감정을 더욱더 폭발시키고 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무조건 받아내자!》, 《친일적폐세력을 청산하자!》는 구호를 내들고 반일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는 한편 친일국우세력을 완전히 청산할것을 강하게 주장해나오고있다.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섬나라족속들의 후안무치한 망동은 현 남조선당국의 우매하고 비굴한 친일사대매국행위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파렴치하게 짓고있는 일본족속들과 《언젠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다》, 《형의》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제침략까지 공공연히 감행하는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운운하고있는것은 그들의

《참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치안유지》의 미명하에

일제는 이 약법을 통해 이른바 《중기》를 꾸며내지 못해 당장 형사책임을 지울수 없는 사람이거나 감옥에서 석방된 《사상범》, 기타 사상적으로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 다시말하여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방해가 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거주, 취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여행과 편지거래 등 모든 권리를 유린하는것을 《합법화》하였다.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일제는 1937년 2월에는 《사상범보호관찰소》라는 구실 밑에 평양, 신의주, 함흥, 청진, 서울, 대구, 광주 등 7개 도시에 이른바 《사상범보호관찰소》라는것을 설치하고 감옥에서 나온 애국자들과 진보적인사상을 탐구보급하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였다.

그러나 잔악무도한 일제는 진보적인 사상, 반일사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사상범》으로 몰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다.

《치안유지》의 미명하에

일제는 이 약법을 통해 이른바 《중기》를 꾸며내지 못해 당장 형사책임을 지울수 없는 사람이거나 감옥에서 석방된 《사상범》, 기타 사상적으로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 다시말하여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방해가 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거주, 취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여행과 편지거래 등 모든 권리를 유린하는것을 《합법화》하였다.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일제는 1937년 2월에는 《사상범보호관찰소》라는 구실 밑에 평양, 신의주, 함흥, 청진, 서울, 대구, 광주 등 7개 도시에 이른바 《사상범보호관찰소》라는것을 설치하고 감옥에서 나온 애국자들과 진보적인사상을 탐구보급하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였다.

그러나 잔악무도한 일제는 진보적인 사상, 반일사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사상범》으로 몰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다.

《치안유지》의 미명하에

일제는 이 약법을 통해 이른바 《중기》를 꾸며내지 못해 당장 형사책임을 지울수 없는 사람이거나 감옥에서 석방된 《사상범》, 기타 사상적으로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 다시말하여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방해가 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거주, 취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여행과 편지거래 등 모든 권리를 유린하는것을 《합법화》하였다.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일제는 1937년 2월에는 《사상범보호관찰소》라는 구실 밑에 평양, 신의주, 함흥, 청진, 서울, 대구, 광주 등 7개 도시에 이른바 《사상범보호관찰소》라는것을 설치하고 감옥에서 나온 애국자들과 진보적인사상을 탐구보급하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였다.

그러나 잔악무도한 일제는 진보적인 사상, 반일사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사상범》으로 몰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다.

《치안유지》의 미명하에

일제는 이 약법을 통해 이른바 《중기》를 꾸며내지 못해 당장 형사책임을 지울수 없는 사람이거나 감옥에서 석방된 《사상범》, 기타 사상적으로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 다시말하여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방해가 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거주, 취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여행과 편지거래 등 모든 권리를 유린하는것을 《합법화》하였다.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일제는 1937년 2월에는 《사상범보호관찰소》라는 구실 밑에 평양, 신의주, 함흥, 청진, 서울, 대구, 광주 등 7개 도시에 이른바 《사상범보호관찰소》라는것을 설치하고 감옥에서 나온 애국자들과 진보적인사상을 탐구보급하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였다.

그러나 잔악무도한 일제는 진보적인 사상, 반일사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사상범》으로 몰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다.



공판정에 끌려가는 민족운동자들

평양의 자랑 옥류약수

평양에는 뛰어난 약리 및 건강증진작용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옥류약수가 있다.



구나 즐겨 찾는 옥류약수이다. 평양시민치고 옥류약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유명해졌지만 사실 이 약수가 알려지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주체76(1987)년 5월 8일 련광정과 옥류교사이에서 약수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대동강공원에 어울리게 약수마시는 장소를 잘 꾸리도록 해주시고 몸소 약수의 이름까지 달아주시었다. 그리고 약수마시는 장소를 잘 꾸려놓으면 멋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옥류약수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리용하도록 하시었다.

이렇게 태어난 옥류약수는 평양의 자랑으로, 인민들 누구나 즐겨 마시는 건강음료로 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지역들의 음류수들이 가지고있는 공통점은 물분자결합계수가 적고 인체에 필요한 광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이온수라고 한다.

그런 물들과 대비해볼 때 옥류약수는 자연적인 환경은 물론이고 물기능적으로나 그 속에 포함된 광물질과 물분자결합계수에 있어서 사람들에 가장 리상적인 광천수라고 한다.

고 한다. 옥류약수에는 수소산소칼슘, 나트륨, 철 등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마시는 방법에 따라 위장관분비를 촉진 및 억제하고 만성위염, 위 및 십이지장궤양을 비롯한 소화기성질환들과 고혈압 및 말초신경계통질환치료에 효과가 있다.

지금도 옥류약수상점으로는 약수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고부로 약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용기에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옥류약수를 정상적으로 마시니 소화도 잘되고 한결 더 젊어지게 알린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독특한 맛과 뚜렷한 치료효과로 하여 옥류약수의 인기는 날이 높아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 철



우리 선조들은 수백년전부터 강병이를 제배하기 시작하였다. 강병이는 생산된 초기에는 주로 꽃강병이를 삶아먹거나 구워먹었는데 찹쌀, 옥수수, 지짐, 떡 등을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였다. 강병이에는 여러가지 비타민들과 광물질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음식물섭취도 많이 함유되어있다. 강병이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변비를 예방하고 지방간을 막는 효과가 있다.

또한 피로를 없애고 원기를 돋우며 감기능을 좋게 하는 작용도 한다. 우리 선조들은 꽃강병이묵을 2~3회 반복한다.

꽃강병이묵을 8월의 별미음식으로 즐겨 먹었다. 꽃강병이묵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꽃강병이를 깨끗이 씻어 물망으로 보드랍게 갈아

민족문리 꽃강병이묵

채에 발아 양금을 앉힌다. 양금이 앉으면 옷물을 찌우고 다시 새 물을 갈아주면서 양금앉히기를 2~3회 반복한다. 옷물을 먼저 풀이다가 양금을 풀이하면서 목을 쓴다. 다 식으면 반듯한 그릇에 2cm정도 두께로 피담아 식힌다. 모나게 썰거나 먹기 편리하게 썰어 양념장과 같이 낸다. 이렇게 하면 맛있는 꽃강병이묵이 완성된다.

본사기자

일화 《밤금 지나간 저분이 뉘신가?》

20세기 초엽 창극의 개척 발전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던 명창 김창환은 말년을 고향 라주에서 보냈다. 김창환은 일제의 민족성말 살해에도 불구하고 흰 두루마기를 늘 입고 다니었으며 백마를 타고 거리를 누비곤 하였다. 어느날 새로 온 일본경찰서장이 조선인군사를 뒤에 달고 경찰서박을 나서다가 김창환과 맞닥뜨렸는데 경찰서장은 순간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백마를 탄 한 량반이 대강의 풍채에 흰 두루마기를 입고 멋진 통영갯을 썼는데 얼굴에선 겁잡게 기쁜 수염발이 산들바람에 흔들거렸다.

범접하기 어려운 위엄기가 진하게 풍기고있었다. (이제 고을안의 간단치 않은 량반이 분명구나. 야차, 조선량반들의 레비이란게 지독스러워 자칫하면 절경친다했지...) 곤장때 떨어지는듯 한 환각을 떨어버리며 경찰서장은 그 즉시 행동으로 넘어갔다. 군화뒤축을 《딱》하고 소리나게 모아 붙이고는 누런 금메를 두른 경찰모양에 정중히 손을 올리며 멋지게 거수경례를 보였다. 김창환은 경찰서장을 보는 듯마는듯 유유히 지나가 버렸다. 《용재좋은 량반》의 뒤모습을 흘린듯이 바라보고있던

경찰서장은 그제서야 손을 내리며 조선인군사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밤금 지나간 저분이 뉘신가?》 아까부터 심경경찰서장의 류별난 행동을 지켜보며 머리를 기웃거리던 조선인군사는 서장의 귀에 대고 귀뉘해 주었다. 《밤금 지나간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소리광대입니다.》 《?!》 멀어져가는 김창환을 바라보는 서장의 입에서는 신음 소리가 연방 흘러나왔고 생각할수록 자기의 억박한 행동이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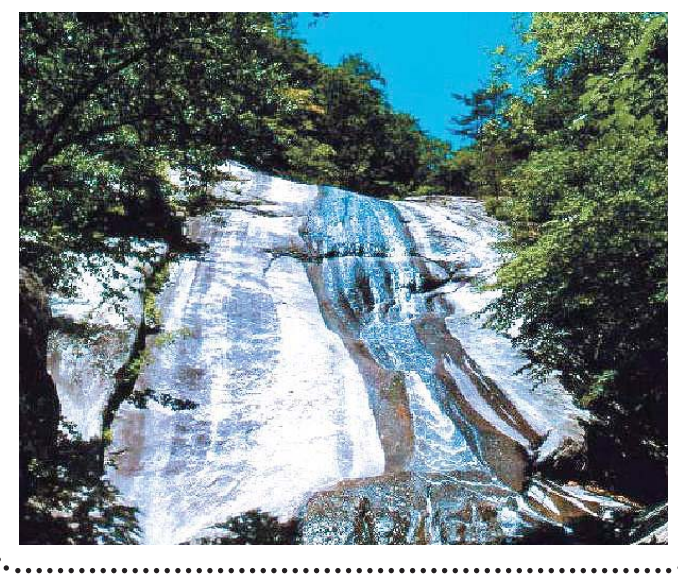
본사기자

사화 천인독 (1)

송악산의 서쪽으로는 죽배천이 흐른다. 죽배천이 세미산의 뒤로 빠지는데 그 부근에는 지금도 고려 초엽에 쌓았다고 하는 독자리가 남아있다. 술한 백성들이 힘을 합쳐 쌓았다고 해서 《천인독》이라고 불리우는 이 제방에는 향토를 애고 가귀은 선조들의 넋이 깃들어있으니 오늘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고려 초엽 어느해 봄날이었다. 꼭두새벽에 한 마을을 급히 나서는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누가 뒤따라와 붙잡기라도 하는듯 종종 걸음을 치었다. 죽배천을 따라 개경으로 가는 길로 꺾어들어서야 그는 두리번거리며 걸음을 늦추었다. 보통기에 다부지게 생기고 서른쯤 나보이는 이 사나이는 서우물마을에 태를 묻은 웅기라는 농사꾼이었다. 두리번거리며 느릿느릿 걷던 웅기는 동쪽산과 남쪽산이 손을 맞잡은듯 좁아진 자루목에서 천천히 벗어

났다. 그는 한참 길옆으로 흐르는 죽배천을 굽어보더니 부르짖었다. 《여기다, 여기! 막으라고 한데가 여기란 말이야.》 불끈 들어진 그의 두주먹이 악을 쓰는것인지 온 하늘에 먹장구름이 밀려들면서 동이로 퍼붓듯 창대같은 비가 쏟아져내렸다. 삼시에 천하는 물바다에 잠겼다. 뒤팔발에 초막을 짓고 길을 매던 웅기도 비에 젖어 도망치듯 걸치고 길에 나섰다. 어서 집으로 가자 하고 죽배천가에 있는 큰길에 나섰다. 아! 아! 아! 이게 뭐가, 평장지 큰 물동이 터진듯 집채같은 파도가 사뭇치며 무섭게 짓쳐내려오고있었다. 미친듯이 범람하는 큰물은 두 팔짜기가 합쳐지는 골안의 개울을 삼키더니 개경으로 동

하는 외동길까지 사정없이 덮쳤다. 바로 그때 길을 오가던 사람들이 사납게 날치는 물결에 말려들었다. 《사람이 빠졌다!》 웅기는 그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오직 한가지 생각에서 앞으로 내달렸다. 그 찰나 또 다른 물결이 그의 뒤로 달려들었다. 《앗!-》 웅기는 집채같은 물결에 말려들어 가랑이처럼 태를 당하였다. 정신없이 허우적대던 그의 손에 무엇인가가 걸렸다. 그때 웅기는 젖먹은 힘까지 다 내어 그것을 꼭 그러안았다. 그것이 웅기를 살려줬다. 천행이면 천행이랄지 늙은 소나무의 한가지를 붙잡은것이였다. 필사적으로 산기슭에 올라 붙은 그는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러 나온 동네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웅기는 며칠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아, 세상에 물란리라라는것



천연기념물 백악폭포

백악폭포는 함경남도 영광군 천불산리에 있는 폭포이다. 폭포의 수직높이는 34m, 물이 흐르는 길이는 49m이다. 화강암으로 된 벼랑우에 홈을 따라 너비 6m정도의 물줄기를 지어 흐르던 물이 75°의 급한 비탈면을 따라 물기둥을 이루며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은 장쾌하고도 아름답다. 폭포수가 바위에 부딪쳐 흩날리는 보얀 물안개와 벼랑틀새에 뿌리박고 기묘하게 붙어있는 푸른 나무들은 폭포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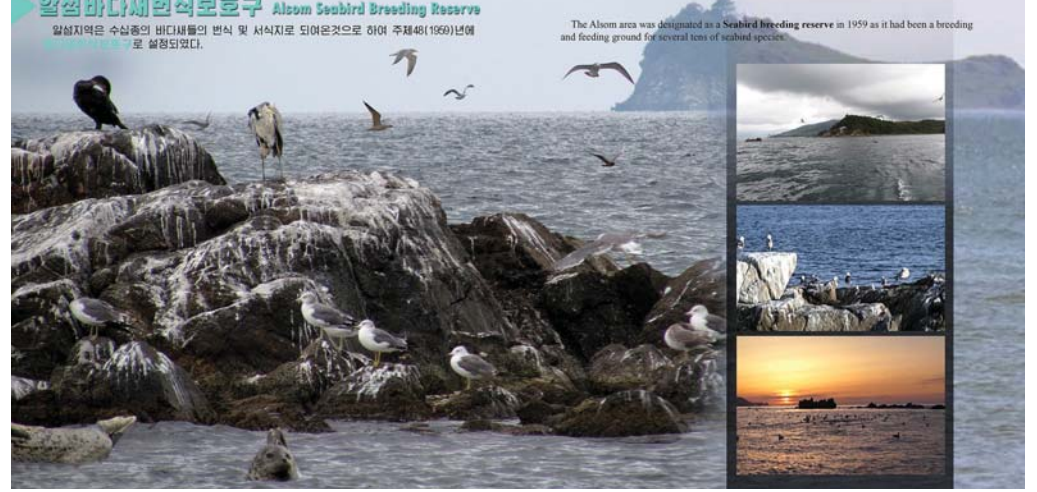
구어준다. 두리에는 참나무, 소나무, 이팝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다. 특히 푸른 숲과 가을철의 붉은 단풍은 이 폭포의 자연경치를 더욱 뛰어나게 하여준다. 멀리서 폭포수는 천불산천의 지류인 작은 하천을 이룬다. 백악폭포는 웅장하고 신비로우며 특이하게 아름다운 생김새를 가지고있어 풍치상의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 제259호로 지정되었다. 본사기자

라선지구의 다양한 생태계 (2) 알섬 바다새번식보호구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계를 가진 자연의 보물고인 라선지구에는 국제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알섬 바다새번식보호구도 있다. 알섬지역은 수십종의 바다새들의 번식 및 서식지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습도가 화초에 주는 영향

습도는 화초들이 자라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습도는 우선 일에 있는 공기구멍의 여닫기를 자극함으로써 식물자라기에 필요한 빛합성에 영향을 준다. 습도가 낮으면 잎으로부터 물기날기량이 많아지면서 식물체안에 물기부족현상이 생기고 그에 따라 공기구멍이 막힌다. 그러면 공기구멍을 통하여 들어오던 이산화탄소량이 적

어지고 빛합성이 잘되지 않는다. 그 결과 식물은 영양부족으로 잘 자라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습도가 높아지면 빛합성은 잘되지만 해충이 발생하기 쉽다. 습도는 또한 줄기자라기에 영향을 준다. 보통 식물의 줄기자라기는 습도가 높은 밤시간에 진행 된다. 맑은 날에는 습도가 낮아

지면서 줄기가 자라지 않지만 저녁부터는 기온이 낮아지고 습도가 높아져 줄기가 자라게 된다. 흐린 날에도 식물체안에 물기부족이 없어 줄기가 빨리 자라게 된다. 그러나 흐린 날이 계속되면 빛합성물질의 축적이 없어 줄기가 자라게 되므로 영양부족으로 식물은 헛자라게 된다. 본사기자

민요 《풀무타령》

《십년을 하루같이 호미 낫을 버려도 우리 마을 조각들 배부른 날 없었네》, 《눈군들이 괴팍몰려 지어날은 옥백미는 앞마을 황지주 놓워창고에 있단다》라는 시적형상과 표현으로 당시 농민들의 생활처지를 그대로

에 맞게 가사가 개작되었다. 개작된 가사에서는 지난날은 한해 괴팍몰려 일을 해도 천대와 고역속에서 농민들의 어려운 생활이 달라질수 없었다는 감정을 반영하고있다. 민요 《풀무타령》은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수공업자들에서 풀무질을 하면서 부러던 로동민요의 하나이다. 풀무란 로에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뜨거운 로에 열을 하부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 풀무질은 지루하고 고달픈 일이였다. 하여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작업동작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지루하고 힘든 일을 보다 쉽고 흥겹게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풀무질의 동작에 맞추어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민요 《풀무타령》이다. 민요 《풀무타령》은 1960년대에 와서 시대적미감

을 보여주고있다. 안팎장단을 타고 흐르는 노래는 한개 악절을 단위로 하고 그것을 약간 변화시켜 반복하는 형식으로 노래전체를 결속하고있다. 선율은 풀무질의 동작과 일치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전반적으로 형상이 박력있고 씩씩하다. 민요 《풀무타령》은 지난날 농민들의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많이 불리우고있다. 본사기자

일사병과 그 예방

햇빛을 오래 쬐이면 머리가 아프고 심하면 일사병에 걸릴수 있다. 일사병에 걸리면 혈압이 오르고 피부가 붉어진다. 집안에서도 무더위와 습기에 의해 일사병이 생길수 있다. 이런 경우 체온이 오르고 땀이 나지 않는다. 일사병에 걸렸을 때에는 찬물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찬물을 마시면 심한 피로감이 일어난다. 미지근한 물 한그릇에 소

금 반차술을 풀어 마시는것이 좋다. 몸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에는 손가락끝을 심한 아픔이 느껴지도록 열쇠 같은것으로 돌리면서 눌러주어야 한다. 이 방법은 혈압을 내리우고 피로의 경련을 해소시킨다. 기온이 높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기 전에 더운물로 몸을 씻고 나가면 일사병을 예방할수 있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제 돈 칠팔만 알고 남의 돈 열네잎은 모른다. 자기것은 작은 리익도 품적이 여기면서 남이 큰 손해를 보게 되는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개인리기주의사상을 비겨 이르는 말. ◆ 가난한 량반 상체에 들어가듯. 낡은 사회에서 생활이 가난한 량반이 옷관청에 들어갈 때처럼 주저주저하며 버젓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모양을 비겨 이르는 말. ※ 상체-옷사장이 있는 곳이나 옷관청. ◆ 남이 장에 간다 하니 무릎에 밧진 씨운다. 남이 무엇을 한다고 하니 저도 덩달아 서두르는 꼴을 비웃어 이르는 말.

9냥이라도 주시오 어떤 사람이 품속에서 한 친구가 자기에게 돈 9냥을 주겠다고 하길래 1냥만 더 붙여서 10냥을 달라고 매질했다. 달라거니 안된다거니 하면서 생강이질을 하다가 종시

품에서 꺼내었다. 참으로 아쉬웠다. 그래서 두눈을 꼭 감고 말했다. 《미안합니다. 9냥이라도 그냥 주십시오.》